



자랑스런 로타리안 시리즈 ①

기업가이며 사회봉사인, 한국인 최초 국제로타리회장, 이동건 前 RI회장

이동건 (주)부방 회장은 기업가로도 유명하지만 사회봉사인으로 명성이 높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하는 이동건 회장은 한국인 최초로 2008-09년도 국제로타리 회장으로 활동하며 한국로타리에 위상을 높였다.



지주사 (주)부방은 이동건 회장의 부친 이원갑 창업주가 1934년 부산에서 직조 공장인 제국제마직포공장을 설립 하면서 시작했다. 또한,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제조업체인 테크로스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회장을 맡고 있다. 2015년 부방그룹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며 지주사인 부방으로 리홈쿠첸의 사명을 변경하고 리빙사업부문을 분리해 생활 가전기업 쿠첸을 설립했다. 또 유통전문업체 부방유통을 설립했다. 그는 지주사인 부방의 회장을 맡았으며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쿠첸의 생활가전사업 경영은 장남인 이대희 대표가 맡고 있다.

서울고와 연세대 정외과를 졸업한 양촌 이 회장은 2016~現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회장과 2016~現

학교법인 단국대학교 이사, 2015 단국대학교 명예 철학박사, 2012 美 Samford 대학교 명예박사, 2010~1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2009~現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 등 경력이 화려하다.

상훈은 석탑산업훈장 수훈,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 국가 유공자 건국포장 상훈, 만해대상 평화부문 수상, 국제로타리 재단공로 표창 국제로타리 회원증장 '캘거리 챌린지도전' 세계 1위 수상, 국제로타리 재단 특별공로상, 소아마비 없는 세상을 위한 봉사상(국제부문)을 받았다. 로타리 경력은 로타리재단 AKS 멤버, 국제로타리재단 이사장, 2008~09 국제로타리 회장, 국제로타리 재단 이사, 국제로타리 재무, 국제로타리 이사, 회원증장 Asia지역 코디네이터, 1999 국제협의회 Training Leader, 1998~99 RI회원증장 코디네이터(ZONE 9), RI지역재단 코디네이터(RRFC), 3650지구 총재를 지냈다.

양촌 이 회장의 최근 근황은 2년 반전부터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회장 역할을 맡아 반기문 명예회장과 함께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인권, 노동, 환경과 반부패 분야에서의 기업 전략을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과 결합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틀을 제공하고 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두 개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자발적인 이니셔티브로서 세계 경영관행에 10대 원칙을 일반화하는 것,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와 같은 유엔 어젠다의 이행을 촉진시키는 일을 한다. 또한, 국제 적십자사 중앙위원과 화재기념 사업회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화재 이언적(1491-1553)은 성리학자로 퇴계 이황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어 주자 중심의 성리학이 조선에서 성행하는 데 이바지한 인물이다.

“나에게 로타리는 일상이다.”



회장님께서 로타리안이 되신 계기는 무엇이었는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릴 적 부친이 부산에서 로타리클럽 활동을 하셨습니다. 3661지구의 총재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남을 돕는 일을 하시는 것이 자랑스럽고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1970년에 사업상의 이유로 서울에 온 지 1년 후, 서울한강로타리클럽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과 로타리 활동을 겸하는 부분을 우려하셨으나, 하기로 했으니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격려해주셨습니다. 시작할 때는 국제로타리 회장이 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로타리안이 된 지 16년 만인 1988~89년에 로타리클럽 회장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시작한 로타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외부에서 바라보던 로타리와 로타리안이 되신 이후 몸소 체험하신 로타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사실, 몇 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로타리는 명예로 하는 활동인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고민이 생겼을 때, 4WAY 테스트를 삶에 적용해보았습니다. 진실한가? 모두에게 공평한가? 선의와 우정을 더하게 하는가? 모두에게 유익한가? 스스로 되돌아보며 고민한 결과, 로타리는 남에게 봉사할 수 있는 조직이며 봉사 기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초심으로 로타리안을 포기하지 않았고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여전히 행복한 일입니다.

무엇이 로타리안을 로타리안답게 만들며, 무엇이 이들의 가슴에 자부심을 심어 주까요?

‘출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로타리안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말씀이 첫째도 출석, 둘째도 출석이었습니다. 문상철, 송인상 씨는 100세가 넘어도 로타리에 출석하였습니다.

회장님께서 로타리안으로 활동하시며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사람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부 아프리카 나미비아에 방문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곳에서 빈곤 퇴치 관련한 봉사 활동을 하며 시내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움집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기근이 들어 굶고 있는 모자를 보았습니다.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제로타리 회장이 되었을 때 ‘전 세계 영유아 사망률 줄이기’가 역점 사업이었습니다. UN과 함께 3만 1천 명이었던 영유아 사망을 2만 명까지 줄였습니다. 하나의 충격이 많은 생명을 지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로타리, 그리고 로타리안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길 원하십니까? 조언 부탁드립니다.

젊은이들의 로타리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매력을 느끼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제로타리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로타리의 경우, 약속한 자기 부담금(연회비)을 정확히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일본에서는 자기 부담금에 관하여 정책적으로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로타리의 기본 정신을 잘 리드할 수 있는 각 로타리클럽 회장의 판단력과 역량입니다. 로타리클럽이 잘 운영될 때, 로타리와 로타리안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